

스마트워치 빠른 속도로 대중화 전망

매력적인 디자인의 세컨드폰으로 여심 공략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스마트워치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워치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완하는 '세컨드 폰(Second Phone)'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가격은 떨어지고 성능은 강화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기존 스마트워치의 주요 소비자는 정보기술(IT) 기기에 관심이 많은 30~40대 남성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여성들 고객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프리미엄폰의 강자인 애플은 '애플워치'의 가격을 내리는 동시에 다양한 소재의 전용 스트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애플워치는 349달러(한화 40만4840원)에서 299달러(한화 34만6840원)로 50달러 저렴해졌다. 교체 가능한 시곗줄인 스트랩은 블루, 옐로, 핑크, 블랙 등 4가지 색상의 스포츠모델과 함께 가죽, 나일론 소재를 추가했다.

소비자들이 애플워치의 스트랩을 계절이나 목적, 필요 등 기분에 따라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기어S2로 스마트워치 전장에 나선다. 특히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며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사용자도 기어S2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이다. 애플의 운영체제(OS)인 iOS와 연동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워치의 잠재고객 중 아이폰 이용자들이 많아지기 위한 전략이다.

'기어 S' 전용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SOCAR)'와 '삼성라이온스', '갈프존', 'ADT 캡스'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한다.

최근에는 시계박람회 '스위스 바젤월드 2016'에서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드 그리소고노(De GRISOGONO)'와 협업한 삼성 기어S2 한정판을 선보였다.

'드 그리소고노'와 협업한 삼성 기어S2는 100여개 이상의 블랙·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드 그리소고노의 가죽 장식 시곗줄로 마감했다. 기어 S의 원형 베젤은 골드 소재로 처리하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통신기능(3G도 탑재돼 있다. 초창기 모델부터 적용된 기능으로 최근엔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문자나 전화를 워치에 몰아주는 기능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다.

LG전자는 안드로이드 웨어 스마트워치 'IG 워치 어베인 세컨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IG 워치 어베인 세컨드 에디션'은 블루투스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없이 단독으로도 LTE 음성 통화, 메시지 송수신 등을 처리할 수 있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스마트워치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팀북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애플 캠퍼스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아이폰 스마트시계인 애플 워치 를 위한 새로운 색깔의 손목 밴드들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다. 안드로이드 4.3과 iOS 8.2 이상의 모든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다.

제품에 삽입된 3개의 물리버튼은 조작에 따라 '즐거찾는 연락처', '메뉴', '극장모드', 'IG헬스' 등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높은 해상도 480x480, 348ppi를 구현하고 다른 회사보다 약 2배 용량의 570mAh 대용량 배터리를 채택했다. 스트랩은 겉면에 가죽을 별도로 입힌 '시그처 브라운' 색상이다. 스트랩 옆면 등 내부는 피부에 거부감을 주지 않는 '틸 시브 엘라스토퍼(TPSV Elastomer)' 재질이다.

루니워치도 주목된다. 루니워치는 스마

트폰의 사용자 환경(UI)을 그대로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4개의 앱 아이콘이 담겨 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겨 앱을 클릭하는 방식이다. 설정, 메시지, 캘린더 등 각각의 앱 디자인이 스마트폰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웨어블의 특성에 맞는 앱을 엄선해 담은 것도 장점이다. T멤버십, T맵 대중교통, 음성메모 등은 손목에 차고 다니며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다. T세어는 스마트 폰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는다.

3G 통신 기능을 갖춰 스마트폰처럼 단독으로 음성 통화와 문자 송수신도 가능하다. /인진수 기자

은행, 오늘부터 일임형 ISA 판매 개시

그동안 증권사에서만 취급했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상품이 오는 11일부터 은행에서도 판매된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KEB하나은행 등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 일임형 허가를 받았다.

일임형 ISA는 계좌에 담은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운용을 금융사에 맡기는 상품으로 금융당국은 ISA에 한해서만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했다.

투자일임업 승인을 받은 은행들은 7영업일 이후부터 상품 판매가 가능해 각 은행 사정에 따라 출시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신한·우리·기업 은행은 오는 11일 곧바로 일임형 ISA 상품을 내놓는다.

국민은행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10종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제공한다. MP에는 공격형 2종, 적극투자형 2종, 위험중립형 3종, 안정추구형 2종, 안정형 1종 등이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ISA 상품을 내놓는다. 불안전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내부점검도 시행한다.

또 3명의 자산운용가를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자산운용 인력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ISA 상품을 출시한다. 기업은행은 정보기술(IT)업체인 파운트와 협업해 일임형 ISA 상품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적용한다.

반면 농협은행은 4월 중순 하나은행은 구 외환은행과의 전산통합 작업이 완료되는 6월에 일임형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보험가입시 14회 자필서명 1회로 간편해진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거쳐야 했던 서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30일까지 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서류 간소화 준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가입 시 자필서명 등의 계약자 확인 절차는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서류상 중복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를 하나로 통합해 알린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간소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A보험사의 생명보험 가입 절차를 조사한 결과 가입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류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1회로 축소되고 덧쓰기 글자 수도 줄어든다.

복잡한 가입설계서는 폐지하고 상품설명서로 통합 처리한다.

소액·단기보험은 보험안내서류를 통합청약서로 대신한다. 또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인정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도 강화된다.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 규모를 고지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특히 가입상품의 종류를 분명히 알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되어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상품의 종류와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구독신청 288-9700

중국 경기 둔화에 주변국 '적신호'

현대경제연구원, 中 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0.5%p 하락

중국의 경기 둔화가 주변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0.5%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90년 4.1%에서 2015년에는 17.2%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다. 1990~2010년 사이 평균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은 올해 6.8% 내년에는 6.3%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중국의 세계 총수입 비중은 10.3%다.

중국 수입의 특징은 미국과 유럽 보다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인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4%이며 그 외 필리핀(13.0%), 말레이시아(12.1%), 태국(11.0%), 인도네시아(10.0%) 등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이기도 한 중국은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을 야기하고 있고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원자재 수출국 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실제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주요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VAR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벡터자기회귀모형)을 구성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대중국 수출도가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한국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성주기자

3월 후 생산 5개월만에 증가세

국내 자동차 생산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대·기아·한국GM·쌍용·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지난달 4만5175대를 생산, 전년 같은 달보다 0.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은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작년 11월(-2.8%), 12월(-5.6%), 올해 1월(-7.8%), 2월(-3.7%)에 걸쳐 4개월 연속 감소해오다 전달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출은 전년보다 4.6% 감소한 26만3197대에 그쳤으나, 내수 판매가 15.7% 증가하며 17만3882대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실질적인 내수판매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 SM6, 티볼라에어, 신흥 K7 등 신차효과, 또 신타페, 스포티지 등 다목적차량의 꾸준한 판매증가가 더해져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